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7

- 나를 따르라 -

2020년 1월 31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르는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고(요일2:6, 요13:15), 그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엡5:2, 요13:14, 15:12), 그가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골3:13),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것 같이 생각할 수(빌2:5)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형상” 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따른다’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심(申禱), 즉 믿는 마음입니다. 그에 비해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정적인 데 반하여 따르다는 말은 동적입니다. 본 회퍼가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구분하여 ‘따름’을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슬러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히틀러를 따르는 것을 아무런 갈등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믿어라.’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의 편지들은 ‘믿음’을 매우 강조했지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실천 없는 믿음을 경계합니다. 물론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결단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가 목표라면,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또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삶,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제도나 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말은 그 점에서 근본이 뒤바뀐 말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32~33쪽